

「물 막는 사람들」, 콘크리트 누수 차단공법 개발

1998. 7. 9

방수 전문 업체인 「물 막는 사람들」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누수를 완벽에 가깝게 보수할 수 있는 「철근부착 시멘트 압력주입 방수방법」이란 신 공법을 개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공법은 철근배관 상태와 수맥을 따라 누수를 찾아내고 짧은 기간 내에 물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다. 그 동안에는 물이 새 경우 구조물의 표면에 방수액 또는 시멘트를 칠하거나 심하면 누수부분을 깊이 파내고 방수액으로 막는 방법이 사용됐다. 그러나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작업과정이 복잡하며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발견됐다. 그러나 「물 막는 사람들」은 이 기술을 이용, 140평 방수작업을 불과 3일만에 끝내는 등 누수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해 냈다.

아스팔트 ‘조로(早老)’ 이유 있다

1998. 7. 22

국내 아스팔트 품질기준이 60년대 미국에서 도입한 것을 그대로 적용, 도로가 쉽게 파손돼 보수비용만 한해 2,800억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국내 아스팔트의 KS품질 규격은 침입도와 점도 등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국내 정유사들은 내구성에 대한 시험인 점도는 외면한 채 침입도 기준만 적용하여 산악 및 산업도로, 고속도로, 교량 등 다양한 도로 여건을 무시하고 한가지 규격제품만 사용하게 돼 시공 후 1~2년만 지나면 파손현상이 나타나 여름철 소성변형의 주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시공상태가 불량한 각종 도로의 보수비용만 전년보다 30억원이 늘어난 2,800억원이 소요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아스팔트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해 이로 인한 보수비용 증대와 페아스콘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고 시인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시멘트공장 현대화 추진

1998. 7. 31

베트남 시멘트공사는 신규로 3개 공장의 추가건설을 외국업체에 의한 건설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3개소와 신규 건설될 3개 공장의 완공 후에는 시멘트 생산이 연산 약 9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규건설과 증설계획은 시멘트 수요가 오는 2000년에는 약 1,600만톤에 이르러 현 베트남 시멘트공사의 2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약 400만톤과 해외 합작기업이 생산하는 265만톤으로는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증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증설계획과 관련해 향후 베트남에서는 시멘트생산 플랜트 및 시설현대화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사업 외자 5억불유치 추진

1998. 8. 19

주요 항만시설에 대해 총 5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목포신외항 등 일부사업의 경우 외자유치 협상이 타결 단계로 빠르면 연말에 대규모 외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외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항만관련 사업으로는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목포신외항, 부산항 4단계 확장 구역 등이다.

효광석재산업, 미장 필요없는 시멘트 시판

1998. 8. 24

시멘트 반죽을 붓고 미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평평해 지는 시멘트가 나왔다. 호광석재산업은 6년간의 연구 끝에 자기수평성 시멘트를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이 시멘트(제품명: 레미셀)는 물을 섞어 공사를 하려는 곳에 쏟아 붓기만 하면 저절로 평평하게 퍼져 미장이 필요 없고 시멘트가 모래와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어 현장에서 모래와 시멘트를 섞지 않고 물만 부어 사용하면 된다. 이 시멘트는 굳는 속도가 빨라 시공후 5~6시간 후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다.

택지지구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1998. 8. 25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업체 보유토지에 짓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사업성 때문에 분양을 미뤄 왔던 수도권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25.7평 이하의 택지지구 내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영택지 공급방식도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 2011년까지 고속도로 등 4,300km 신설 1998. 9. 18

건설교통부는 도로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 오는 2011년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4,300km를 신설한다. 또 이 기간 동안 국도의 4차선 비율이 현재 24%에서 50% 수준까지 늘어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총 178조 7,000억원을 투입, 현재 8만 5,000km인 도로연장을 14만km로 늘리게 되며 연간 37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역균

형개발을 위해 낙후지역 및 동서축개발,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결 도로망을 중점적으로 건설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새로운 고유동 콘크리트 개발 1998. 9. 29

일본 마에다 건설이 수중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기존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을 줄여도 유동성, 간극통과성이 향상돼 온도응력을 억제할 수 있는 고유동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배합은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저감시키고 결합재료를 줄여 발열량을 억제하는 한편 석회석 미분말을 혼합함으로써 페이스트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유동성, 충전성(간극통과성)을 향상시켰다. 마에다 건설은 비용절감, 공기단축을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2기동식, 중공식 등의 기초형식을 갖는 대형교각기초 등에서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경기 '99년말 풀린다 1998. 10. 1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99년 건설업 경기전망」에 따르면 '99년도 총 건설공사 계약액은 51조원으로 올해의 49조 4,800억원보다 3.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99년 하반기에 저점을 통과, 연말부터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계약액이 2.8% 줄어든 31조 8,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올해보다 14.6%가 늘어난 19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돼 건설경기 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다. 특히 '99년에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조처에 따른 주택경기부양효과와 민자사업 지원, 시중자금의 유동성 증가 등으로 연말에는 건설경기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시멘트업계, 구조조정 본격화

1998. 10. 1

일본 시멘트업계가 수요감소로 인한 혹독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멘트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합병을 단행한 秩父小野田·日本시멘트 양사는 올해 10월 상호를 태평양시멘트(주)로 바꾸고 매출액 4,494억엔의 업계 1위로 뛰어 올랐다. 이로써 태평양시멘트(주)는 연산능력 4,300만 톤, 일본 내 시장점유율 39.3%로 세계 제 4위의 업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판매, 물류 일원화로 합리화, 효율화를 추진하고 영업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회사 설립 및 시멘트사업 제휴에 합의한 三稜Materials사와 宇部興産사도 올해 7월 1일 판매, 물류를 통합한 공동회사 宇部三稜시멘트(주)를 설립하고 10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宇部三稜시멘트(주)는 총자산이 1,300억엔, 연산능력 250만톤(해외부문 제외)으로 업계 2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외에 최근 住友大阪시멘트와 電氣化學工業의 업무제휴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당분간 일본 시멘트업계는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휩싸일 것으로 분석된다.

개혁지연 땀 '99년에도 암울,

KDI '99년 경제전망

1998. 10. 1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9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 2개를 내놓았다. KDI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1.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회생정책을 감안해서인지 "종합적으로 볼 때 0~2% 정도

의 플러스성장이 가능하다"며 낙관적 전망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KDI는 현재 64조원의 공채발행규모를 상향조정해 추가부실을 정리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과 IMF와의 합의 내에서 통화확대 및 추가적인 금리인하, 공기업 민영화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수요 내년 하반기 회복

1998. 10. 19

레미콘공업협회는 내년도 레미콘수급전망을 통해 부동산 및 민간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져 내년 상반기에 바닥을 보인 이후 하반기에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중 수요는 4,452만^m³로 올 상반기 실적보다 4.44%가 감소, 수요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호조를 보이는 관수용 레미콘수요와 달리 민간건축경기의 침체로 민·관수요양극화현상은 뚜렷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 '99년 하반기 중 수요는 5,226만^m³로 올 하반기 추정치보다 17%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9대 신항만사업 전면 재조정

1998. 10. 20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개발 정책설명회를 갖고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민자유치 부진 등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9대 신항만사업의 동시추진이 곤란한 점을 감안, 보령신항, 새만금신항 등 2개 신항만에 대한 시설투자를 오는 2006년까지 전면 유보하는 대신 그 재원으로 화물적체해소가 시급한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북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아산)항, 울산신항, 목포신외항, 포항영일신항 등 4개 신항은 지속투자대상으로 선정, 민자유치사업 및 배후산업

단지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2003년까지 5조원 투입
대대적 지역개발**
1998. 10. 29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키로 하고 8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민자 3조 4,300억원 등 총 4조 6,800억원을 투입해 2003년까지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평창·인제·정선지구, 강릉지구, 충북 제천지구, 충남 태안지구, 전북 순창지구, 전남 장흥·진도지구, 경북 상주·의성지구, 경남 남해·하동지구 등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이 주어지며 22개 법률에 의한 각종 개발관련 절차가 면제되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등이 50% 감면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5년간 면제된다.

한라, 경영권 외국에 양도
1998. 10. 30

한라그룹이 만도기계 등 계열사의 경영권을 모두 외국인에게 넘긴다. 한라그룹은 1단계로 기존 계열사인 한라시멘트(주)의 자산과 인력 일체를 미국 로스차일드사가 세운 새로운 법인인 RH시멘트에 4,500억원을 받고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한라시멘트(주)는 양도대금 4,500억원으로 기존의 금융채무를 완전히 해소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고 로스차일드사는 새로운 회사 RH시멘트를 인수할 외국인 투자자를 물색하는 대로 브리지론에 해당하는 대금을 받고 경영권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해 한라필프제지처럼 외국인투자가가 경영권을 갖게 된다.

쌍용, 시멘트그룹으로 재출발
1998. 11. 4

쌍용그룹은 자금사정이 악화된 계열사인 쌍용건설, 남광토건을 주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기업개선작업(위크아웃)을 신청, 이를 계기로 쌍용정유 등 '몸통'까지 팔아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종합 구조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쌍용은 이번 구조조정방안에서 쌍용정유 및 쌍용양회 시멘트공장 매각(동해공장) 등으로 '99년 상반기까지 2조 8,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20개 계열사를 통폐합 또는 추가로 매각, 쌍용양회 등 7개사로 몸집을 가볍게 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그룹부채비율(부채규모 11조 9,400억원)은 현재의 399%에서 303%로 줄어들어 쌍용양회를 주력업종으로 한 '시멘트재벌'로 복귀하게 되며 대대적인 환부 도려내기 수술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경제자유지수 '뺏겨'
1998. 11. 5

지난해 우리 나라 민간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여부를 나타내는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지난 '90년 39위에서 5단계나 더 떨어진 세계 44위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자유네트워크(EFN: Economic Freedom Network)가 최근 세계 1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발간한 「세계 경제자유지수 98」 보고서에서 나타났다고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는 정부비중·시장경제·화폐가치·자산운용·국제거래·자본거래·법체계 등 모두 7개 부분을 조사, 종합평점을 매기는데 우리 나라는 10점 만점에 7.5점(평균 평점은 6.5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90년의 평점 5.8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진 것이지만 순위는 39위에서 오

히려 더 하락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시멘트산업 판도 재편

1998. 11. 9

동남아시아 시멘트산업의 판도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외국자본이 아세안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시멘트 생산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년의 20%에서 지난 9월 현재 53%로 급상승하였으며 또한 키른능력 기준으로도 '97년의 5%에서 45.6%로 9배 이상의 신장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계 자본의 점유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계 자본 가운데서도 홀더뱅크사가 '97년 2.1%에서 '98년 22.9%로 10배 이상 늘었고 시멕스사는 2%에서 15.1%로 8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들 2개사가 아세안 5개국 전체 시멘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로 분석됐다. 이처럼 동남아 시멘트시장이 재편되는 이유는 통화위기로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값도 30~50%나 폭락하여 해외자본이 참여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 '고통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

1998. 11. 10

대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97년에 1.5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고통지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의 실업증가, 경제성장을 급락, 소득감소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20.9로 치솟으며 OECD 2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6.7), 싱가포르(4.0)의 3.1배와 5.2배나 되며 대만(0.7)에 비해서는 무려 29.8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을 받은 아시아 3개국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고통지수가 96.5와 25.1로 우리 나라보다 높았다.

쌍용, 스페인 우마사(社)와 3년간 시멘트 150만톤 공급계획

1998. 11. 11

쌍용양회공업(주)은 세계적인 시멘트공급회사인 스페인 우마(Umar)사와 계약을 맺고 앞으로 3년간 150만톤의 시멘트를 미국의 우마 현지법인에 수출키로 하고 17일 1차로 4만톤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미 수출은 단일 계약으로는 최고액인 7,500만 달러 규모로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내수침체를 수출로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양회는 이번 계약에 따라 재고물량 축소와 가동을 제고는 물론 수익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까지 SOC투자 집중추진

1998. 11. 14

기획예산위원회는 한국재정학회를 통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99~2002) 수립에 대한 정책제시'를 통해 90년대 이후 정부의 SOC확충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비용 등 물류비부담이 계속 늘어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중기재정계획을 마련, 성장잠재력 확보 및 경기활성화 효과가 높은 SOC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우선 순위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계속비 제도의 활용 등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중기재정계획의 시행으로 재정운용이 다년도 예산중심으로 전환돼 합리적이고 규율화된 재정이 구현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논의 무산

1998. 11. 16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3일부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가 최대 쟁점인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案)을 둘러싸고 산업적 손실을 우려한 개발도상국들이 격렬하게 반발해 논의 자체가 무산되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 행동계획은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방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 개도국에 대해 온실가스감축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제재방안 등 3가지를 2000년 6차 당사국총회 때까지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한일베일런스, 리튬이온 폴리머전지

공장 완공

1998. 11. 18

한일시멘트공업(주)가 미국 베일런스 테크놀러지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한일베일런스가 경기도 용인에 리튬이온 폴리머전지 공장을 완공하고 '99년 초부터 제품양산에 들어간다. '97년에 착공, 총 5백여 원을 투자해 대지 1만평, 건평 4천평 규모로 완공한 이 공장은 월 1백만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회사측은 생산초기에 셀룰러폰용 소형전지를 주로 생산하고 '99년 말부터 노트북용 중형전지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자재수요 내년에도 감소

1998. 11. 30

건설산업연구원은 '99년 건자재수급 전망'을 통해 건설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자재 수요는 3~

5% 정도 감소하는 등 '99년에도 건자재수요 회복을 기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주택경기가 최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그 동안 미뤄왔던 대기성 주택투자가 풀릴 경우 소폭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멘트는 신규 착공의 감소에 따른 2차 제품의 수요감소로 4.2% 감소한 4,166만톤에 그칠 것이며 레미콘의 경우 6년 전 수준인 8,554만³(3.2% 감소)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 정부도 출자

1998. 12. 3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에 도입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유동화회사에 일부자금을 출자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의 출자만으로는 유동화회사가 충분한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유동화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금융기관과 외국인의 출자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출자자 및 출자 규모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발기인조함과 상품개발 및 회사설립작업 등을 지원할 가칭 '한국주택저당주식회사 설립기획단'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현대정공, 콘크리트 펌프카

210만 달러 수출

1998. 12. 4

현대정공이 중국으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 2백10만달러어치를 수주하고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현대정공은 최근 중국 기전설비 입찰국에 붐(Boom) 길이가 37m인 콘크리트 펌프카 10대를 수출키로 하고 붐 조립 및 장착기술 계약도 맺었다. 이번에 수주한 콘크리트 펌프카는 콘크리트 배출량

및 배출속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최첨단 제품이다. 현대정공은 이번에 업계 최초로 기술까지 수출하고 내년에 50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옵션까지 확보해 놓았다.

레미콘산업 구조조정 발목

1998. 12. 7

IMF이후 레미콘업체 10개사중 1.6개사 꼴로 부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당수가 공장을 재가동하거나 준비중이어서 설비과잉으로 허덕이고 있는 레미콘산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전체 521개사의 16.1%에 달하는 84개사가 부도를 냈으나 이들 업체 중 57개사는 상호변경을 통해 재가동 중이거나 준비중이고 실제 폐업한 업체는 27개사에 불과하며 더욱이 일부업체는 단기자금확보 등을 위해 덤핑을 일삼는 등 가격체계를 흔들어 놓고 있어 전실한 기업마저 동반부실로 내몰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99년 건설투자 올보다 3.1% 감소

1998. 12. 7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99년에는 전년보다 건설투자가 증가할 요인이 내재돼 있지만 가계의 주택 수요와 기업의 투자여력이 크게 감소한데다 부동산 경기침체도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적어 건설경기의 실상을 반영하는 건설투자가 올해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목용 건설투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투자부진으로 3.2% 증가하는데 그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각각 6.2%, 1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초에 23.8%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98년도 건설투자를 정부의 건설경기활성화정책에 힘입어 14.0% 감소할 것으로

수정, 예측했다.

건설업체 부도 줄어든다

1998. 12. 9

건설업체의 부도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동안 부도를 낸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21개사, 전문건설업체 54개사 모두 75개사로 나타나는 등 두 부문 모두 지난 8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는 IMF이후 경영상태가 열악한 건설업체들이 대거 퇴출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부도를 낸 건설업체수는 모두 1,779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5%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올 부도업체수는 1,8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새해 예산 84조 9천억 확정

1998. 12. 10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총 84조 9,376억원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당초 정부안보다 8,524억원이 순삭감된 예산은 과다 계상된 국제 등 이자 및 생산성이 떨어지는 세출을 삭감하는 대신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는 SOC 등 투자사업에 예산배정을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나 사업예산만으로는 전체 증액분의 35.2%인 5,261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세출증액분의 60.3%인 9,000억원이 지방교육재정지원으로 배정된데다 도로공사·수자원공사 출자금, 경부고속철도 건설부문, 시설물 도면 전산화사업비 등에서 1,091억원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건설투자 확대해 경기부양

1998. 12. 14

정부와 여당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후방 호

과가 큰 주택·건설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투자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70% 이상 배정, '99년도 재정적자의 50% 수준을 상반기에 실현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또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 및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할부채권매입 등 소비자금융을 적극 확대하고 양도세 감면,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재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실업 예산을 8조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이후 국내경기 반전

1998. 12. 18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993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99년도 1/4분기 기업경기전망(BSI)'에 따르면 내년도 1/4분기의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89로 4/4분기 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3/4분기 이후의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계속 증가해 국내경기가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경기부양외지와 실세금리의 대폭적인 하락 및 선진국의 잇따른 금리인하 등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업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항만개발 전략이 없다

1998. 12. 19

해양수산부 개최로 열린 21세기 미래형 선진 항만 개발정책 워크숍에서 기존의 항만개발정책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항만의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이라며 주변국가 항만과 경쟁을 수행할 만한 대형중추항만의 개발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중추항만의 경우 기반시설과 기능 및 정보시스템을 갖춘 제3세대 첨단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거점항만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만개발에 따른 배후연계수송망, 배후산업단지, 친수성 항만공간개발 등이 일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진했다.

주택사업자 지방세 감면 추진

1998. 12. 21

건설교통부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매입에서 주택건설 후 분양까지 부담하게 돼있는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최근 행정자치부에 요청,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택지매입시 취득가격의 2%와 3%를 취득세와 등록세로 내고 택지보유기간중에는 종토세(0.2~0.5%), 도시계획세(0.2%) 등 각종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주택분양시에는 국세로 특별부가세(20%), 부가가치세(10%) 등을 내도록 돼있다.

정부, 광역개발계획 확정

1998. 12. 21

정부는 19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오는 2011년까지 광주와 목포권역에 1,240만평 규모와 대전과 청주권역에 1,062만평 규모의 공업용지를 개발하기로 하는 등 광역권개발계획을 확정했다. 또 강원, 강릉 등 8개 개발촉진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광주·목포권역은 총 19조 9천억원, 대전·청주권역에 총 17조 6천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광양만과 진주권을 광역권역으로 지정했다. ▲